미국 돈육자조금 및 양돈산업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2007. 6. 5 ~ 6. 13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미국 돈육자조금 및 양돈산업 시찰단

□ **방문목적 :** 의무자조금 선진국인 미국의 자조금사업 운영실태를 알아보고 양돈산업 동향을 파악하여 양돈자조금의 효과적 운용과 국내 양돈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함.

□ **방문기간 :** '07. 6. 5 ~ 6. 13 (8박9일간)

□ **방문자 :** 17명

○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건태
부위원장	김동환
부위원장	진길부
위 원	김건호
위 원	김명규
위 원	박창식
위 원	오세관
위 원	이병규
위 원	이제만
사무국장	고진각
과 장	박순철

○ 관련단체 : 대한양돈협회 전무 정선현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팀장 신웅식

○ 기 타 : 의명농장 대표 박광욱 (양돈자조금 대의원)
휘드베스트 대표 윤병현
동축포크 대표 김기태

○ 자 문 :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 박영인

□ 방문일정

6. 5(화)

1005 인천공항 출발, UA 884/616
1700 Washington, D.C. 도착
호텔 : Hampton (☎1-703-818-8200)

6. 6(수)

종일 : 일정협의 및 자유시간 - WDC지역
저녁 : 방문단주최 만찬 - 미국농무부 관계관 및 한국농무참사관 초청
호텔 : Hampton

6. 7(목)

오전 : 미국농무부(USDA/AMS)방문 - 돈육자조금 전반/정부의 역할
오후 : WDC지역 자유시간
1845 WDC 출발, UA 629/1243
2151 Des Moines 도착
호텔 : Howard Johnson (☎1-515-967-4886)

6. 8(금)

오전 : 세계돈육박람회(World Pork Expo)
오후 : Expo 현장에서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와 회동 - 돈육수출
호텔 : Howard Johnson

6. 9(토)

종일 : Iowa 양돈협회주관 프로그램 호텔 : Howard Johnson

6. 10(일)

오전 : 아이오와 농장 방문
오후 : 자유시간 - Iowa지역 호텔 : Howard Johnson

6. 11(월)

오전 : 돈육자조금사업단(NPB)/미국양돈협회(NPPC)
- 자조금사업 및 양돈산업 전반
오후 : 옥수수자조금사업단(Corn Board)
1904 Des Moines 출발, UA 5416/423
2216 San Francisco 도착
호텔 : Cathedralhill (☎1-415-776-8200)

6. 12(화)

오전 : San Francisco 자유시간
1310 San Francisco 출발, UA 879

6. 13(수)

1735 인천공항 도착

미국 자조금 제도

□ 자조금은 서구의 노동조합이 활동비를 갹출하는 방법으로 모든 구성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check-off)한데서 유래함

□ 농업자조금의 원형은 19세기말 미국에서 발안되어 1930년대 농업조정법('33년), 농업유통협약법('37)이 제정되면서 농산물 전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실시함

□ 대부분의 농업선진국은 용어는 다르나 (Checkoff 또는 Levy)미국의 자조금제도와 유사한 방식을 다양하게 개발·원용하고 있음

□ 미국의 연방정부 의무자조금은 현재 17개의 농산물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중 13개 품목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각 주마다 주법에 의한 임의자조금사업이 널리 실시되고 있음.

○ 품목별 자조금법을 별도로 제정 실시해 오다가 1996년에 전 품목이 적용 가능한 준거 법률, 상품촉진연구정보법(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of 1996)을 제정함

○ 기본사업 영역은 상품촉진(Commodity Promotion), 연구(Research) 및 교육(Education) 임

○ 주요 자조금품목 : 양모('55), 면화('66/'67), 감자('72), 계란('76), 유제품('84), 쇠고기('86), 돼지고기('86), 꿀('87), 수박('90), 대두('91), 음용유('93)

1. 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면담자 : 농산물 유통청(AMS) 청장(Lloyd Day), 부청장(Craig Morris) 및 자조금 담당 책임자(Ken Payne)

□ 초청참석자 : 주미한국대사관 이양호 농무참사관

□ 자조금 담당부서

○ 농산물 유통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 농축산물 자조금 전반 관장

□ 준거법률(Enabling Legislation)

○ 각 품목별 연방법(돈육자조금법 1985년 제정) 또는 주법에 의해 실시

○ 1996년에 전 품목이 적용 가능한 법률, 상품촉진연구정보법(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of 1996) 제정

□ 정부의 지도감독 비용

○ 농무부 품목관리, 세관수입관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급여 포함)은 해당 자조금단체가 부담 - 농무부내 자조금 전품목 전담직원 20여명 (돈육 연간비용: $175,000)

○ 관련 법(Act) → 행정명령(Order) → 제규정(Regulation)

□ 기타

○ 수출농산물에 한해 정부 대응자금(matching fund) 지원

○ 자조금관련 법규위반에 대하여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내의 체형

○ 농민의 찬반투표(referendum)는 자조금실시 사전(pre-front) 또는 사후(delayed)에 실시

<사진1-1> 미농무부 브리핑

<사진1-2> 미농무부 방문 기념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미국의 농업에서는 자조금이 각 품목마다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무부일을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잘 광고해 주는 것이 자조금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조금은 농가 스스로 돈을 내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의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음.

○ 소비홍보, 교육, 조사연구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근래에는 도시화 영향에 의해 공해, 분뇨 및 동물복지 등을 해결하는데 자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정부의 역할은 품목별 자조금사업에 대해 법, 명령, 규정과 지침대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는 것임.

- 돈육자조금 대의원(Delegate)의 경우 각 주당 2인(44개주×2인=88인)을 기본으로 하고, 생산량 비율에 따라 업계의 추천을 받아 농무장관이 임명함. 대의원 선거는 정부가 직접 주관함.
- NPB 이사(관리위원)는 NPPC(미국돈육생산자협회)에서만 추천하며, 농무장관이 임명함. NPPC가 돈육산업의 대표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임.
- NPB 이사가 되면 정부에서 법과 도덕성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있음.

○ 미국에서 자조금을 시작한지 2년후에 정부에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자조금이 필요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함.

○ 정부에서 사업시행 규정을 직접 만들며, 자조금사업은 NPB가 주관하여 집행하지만,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조금은 로비활동에 사용치 못하게 규정되어 있음. 로비활동은 NPPC 예산으로 충당함.

○ NPPC는 양돈산업의 대표조직으로 초기에는 NPB 업무의 상당부분을 계약절차를 밟아 자조금을 집행하였으나, 2000년에 자조금의 위헌소지가 문제되어 정부에서 개입, NPB와 NPPC를 완전 분리운영하고 있음.

○ 도축장의 수납협조는 잘 되고, 도축장에서 수금하는 것은 편의에 의한 것뿐이며, 도축부분은 돈육산업의 일부분으로 잘 인식되어 있음.

○ 자조금 담당 공무원은 자조금 관계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업계와 자주 접촉, 협력하고 있음. 품목별 담당 공무원의 급여는 물론, 자조금 관련 상급자도 비율에 따라 품목별로 할당하여 자조금에서 부담함.

○ 돈육자조금의 경우 처음에는 0.2%(100달러당 20¢)를 거출하다가 차츰 상향조정하여 현재는 0.4%(100달러당 40¢)로 하고 있으며, 수입육은 수입통관 시점에서 수금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른 품목과 공동으로 소비홍보(예. 돈육과 와인)를 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협찬금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음.

□ 미국 돈육자조금사업

○ 사업내용

- 소비촉진(promotion)사업 : 국내 및 해외에서의 미국산 돈육의 수요확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활동 등
- 소비자 정보제공(consumer information) : 돈육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위생건강 및 안전성 홍보 등
- 조사연구(research) : 돈육의 품질향상, 안정성, 경영 및 유통 그리고 당면 위기관리를 포함한 양돈산업 전반에 걸친 조사연구 등

○ 2006년도에는 전체 집행액의 약 80%는 NPB에서 그리고 약20%는 각 주에서 집행하였으며, 전국 및 각 주의 사업부분별 집행비율은 공히 대체로 소비촉진분야에 60%정도, 조사연구사업에 30%정도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소비자정보제공에 사용되었다.

○ NPB의 2007년도 자조금사업 지출계획

(단위: 백만불, %)

구 분		예산금액	비율
수요확대	광고	9.5	19.5
	수요촉진 프로그램	2.3	4.7
	해외시장개발	4.7	9.6
	소매시장 판촉	2.8	5.7
	시식회 등	2.1	4.3
	돈육정보제공지원	2.3	4.7
	시장조사지원	1.9	3.9
	틈새시장	0.6	1.2
	소 계	26.2	53.7
사육환경 및 품질관리	환경	0.8	1.6
	돼지 건강관리	2.4	4.9
	사양 및 육종기술 개발	1.6	3.3
	동물복지	0.6	1.2
	돈육 안전성	2.0	4.1
	소 계	7.4	15.2
기타	교육 지원	2.3	4.7
	단체 및 산업간 교류	2.1	4.3
	생산자 및 지방과의 교류	2.6	5.3
	유관기관 지원	3.1	6.4
	행정	1.8	3.7
	관리 및 사업평가	1.2	2.5
	기타	2.1	4.3
	소 계	15.2	31.1
합계		48.8	100.0

자료 : National Pork Board, Annual Report 2006, 2007.

2. 미국돈육자조금사업단 (National Pork Board)

□ 면담자 : CEO Steven Murphy, 전무 Jim Meimann

□ 추진경과

○ '67년 Iowa 주에서 임의자조금을 처음 실시하였으며, '74년 부과금 인상과 함께 무임승차(40%)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의무자조금제 필요성이 대두됨.

- 1985년 「돈육소비촉진, 연구 및 소비자 정보법」이 제정되면서 의무자조금제를 실시함(1986년 11월부터 시행).
- 정부가 돈육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법을 제정, 집행하게 되었고, 이에 양돈업계가 부단한 자구노력을 계속하였음.
- 미국의 돈육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돼지고기와 육가공품의 시장을 유지, 개발, 확장하기 위해서 의무자조금을 도입, 실시하는 것임.

□ 운영주체

○ 전국돈육생산자 대표단(National Pork Producers Delegate Body)

- 농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 생산자 및 수입업자 170명(각주 돈육관련 2명이상)
  · 각 지역별 돼지의 시장가격 총액의 비율에 따라 대표 할당함.
- 임무 : 부과금의 부과 또는 인상에 관한 사항을 농무부장관에 건의하고, 자조금 부과율을 결정함.
- 의결 : 모든 의견은 과반수이상 투표와 과반수이상 찬성을 요함.

○ 미국돈육사업단(National Pork Board, NPB)

- 돈육생산자 대표 15명으로 구성되며 농무장관이 임명(임기 3년)
  · 처음에는 수입업자 등도 포함되었지만, 현재는 생산자대표들로만 구성되고, 정부, 유통, 수입업자 등은 회의는 참석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음.
- 자조금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전담함(농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자조금 부과 및 제재

○ 생산자(육돈,자돈,종돈)와 수입업체(수입육)에 자조금 부과함.

- 국내산 비육돈은 도축장에서, 수입제품은 관세청에서 징수함.
- 종돈, 자돈업자는 자발적으로 본인 판매한 금액에 대한 자조금을 납부함.

○ 부과기준은 시장판매가격의 1,000분의 4임(100달러당 40¢=0.4%)

- 근래에는 환경, 동물복지, 돈육안전성, 돼지건강 등을 위해 별도로 분과를 두어 운영함.

○ 부과금체납 또는 송금태만시 매달 체납액의 1.5% 과태료 부과함.

□ 운영현황

○ NPB 직원은 75명이며, 본부에 60명, 각주의 시장 파견자가 15명임.

- 현재 NPPC(돈육생산자협회) 직원은 12명이며, 종전의 대부분 직원이 NPB로 옮겨와 일하고 있음.

○ 자조금 수입 : 60백만불 (2007)

- 징수대상 : 육돈, 자돈, 종돈, 수입육(5~10%)
- 11백만불(20%)은 해당 주에 환원되고, 49백만불(80%)을 NPB가 집행함.

○ 자조금 집행 : 소비촉진 61%, 연구 및 생산자교육 23%, 소비자정보제공 12%, 행정비용 등 기타 4% 등 사업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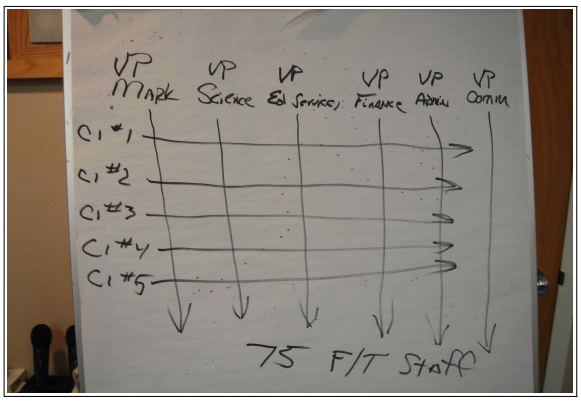
- 역점사업 : 국내외 소비확대, 소비관습 변화 유도, 산업지도자 개발, 산업 표준설정, 돈육이미지 긍정화 등

○ 각 분야별(시장,과학,교육,재정,관리,연구) 상근이사(VP)가 6명 있으며, 독자적으로 사업수행 하고, 각 사안마다 분야별 담당자가 역할을 분담함.

<그림2-1> 미국 돈육산업 전략(2007)

1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 유도(G 1 #1)
2 돈육산업 신뢰성 및 이미지 제고(G 1 #2)
3 산업내 인력 양성(G 1 #3)
4 농가 수익 상승(G 1 #4)
5 수출시장 확보 및 확장(G 1 #5)

<그림2-2> NPB 조직 및 업무체계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정부가 매년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에 대한 결산을 승인함.

○ 법에 운영관리비에 대한 한도액을 정한 규정은 없으며, 보통 5~6%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1996년 모든 농산물에 대한 자조금법이 만들어진 것에는 15%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음.

○ 농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극 찬성이 41%, 대체로 찬성이 32%로 찬성측은 73%이며, 절대 반대가 8% 등 반대측은 18%였음.

○ 미국도 사료값이 20~30% 올라 걱정이 많으나, 다행히 대부분 농가가 사료원료(옥수수,대두등)를 직접 생산하고, 분뇨처리는 농토에 직접 환원함.

○ 미국은 현재 인위적인 수급조절 대책은 없으며, 자유시장의 경쟁체제에 의해 가격이 결정됨. 자조금은 공급측면이 아닌 소비촉진과 수요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공급 과잉시 소비를 늘리면 수급균형에 도움이 되므로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이 이루어 짐. 물론, 미국에서도 돼지가격 폭락시 수급조절을 위해 자조금을 쓰자는 말이 나오고 있음.

○ 미래 돈육산업의 전망은 환경, 사료가격문제 등으로 생산 증가는 어려울 것이며, 수요확대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NPPC가 국회에 로비를 하고 있으며(워싱턴에 사무소 설치), FTA가 실현되면 미국 양돈농가가 두당 10불의 추가수익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발표가 있는 바, 이러한 정책 형성의 저변에는 NPPC, NPB의 활동이 주효함.

○ 지난번 돼지가격이 낮아 농가 수익이 떨어졌을 때 농가들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조금을 조성, 운영하였음. 이러한 이유는 농가가 자조금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임.

○ 자조금을 도축장에서 거출하는데 별 문제는 없으며, 도축장에서 송금을 지연하면 이자를 부과하고 있음. 일부 자돈, 종돈 거래시 자조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법보다는 현장에서 설득, 효유하여 자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그동안 “The other white meat”와 연계해서 “Don′t be blah” 캠페인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음.

<사진2-1> NPB 브리핑

<사진2-2> NPB 본부 사무실 안내

3. 미국육류수출협회 (US Meat Export Federation)

□ 면담자 : 본부 산업 관련 이사 John Hinners

□ 주요현황

○ 설립 : 1976년 - 처음 하나의 해외시장에서 출발, 현재 80개 시장으로 확대

○ 업무 : 미국에서 생산되는 적육(우육, 돈육, 램 등)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발업무 수행

○ 재원 : 정부, 자조금단체(우육, 돈육, 옥수수, 수수, 대두) 및 수출회사의 출연금

- 각 품목별 산업에서 50%, 정부의 대응자금을 50%를 지원받고 있음. (2007년 예산액 2,800만불)
- 전체예산의 40% 정도가 돈육부분에서 지원되고 있음.(NPB지원액: 430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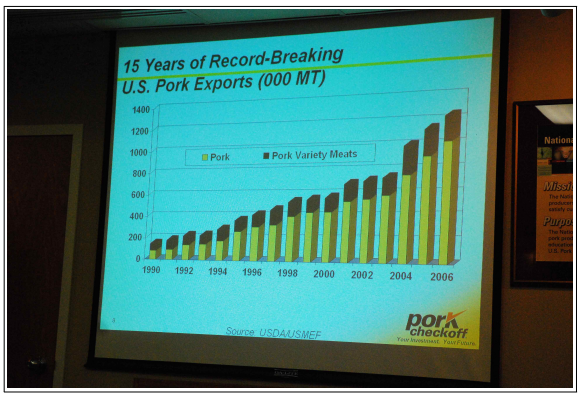
○ 사무소 : 직원 100명

- 본부 Denver, Colorado
- 해외지부 :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폴, 러시아, 영국,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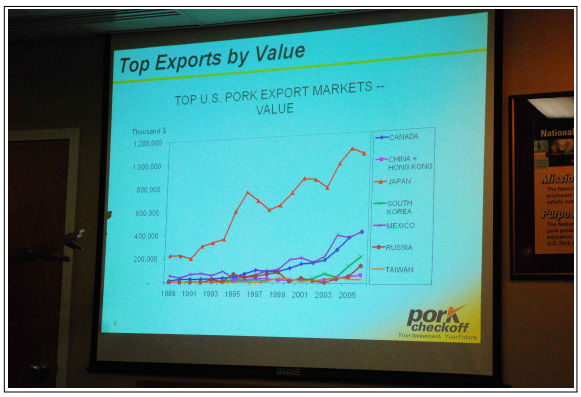
○ 돈육수출 :

1996 -	422천톤	11억3천만불
1997 -	469천톤	12억불
1998 -	542천톤	11억 8천만불
1999 -	564천톤	12억 3천만불
2000 -	581천톤	13억 4천만불
2001 -	702천톤	15억 5천만불
2002 -	726천톤	15억불
2003 -	757천톤	15억 8천만불
2004 -	1,023천톤	22억 2천만불
2005 -	1,157천톤	26억 3천만불
2006 -	1,262천톤	28억 6천만불

<그림3-1> 돈육 수출량



<그림3-2> 돈육 수출액



□ 주요 질문응답 내용

○ 돼지고기 품질관리를 위해 NPB(미국돈육자조금사업단)에서 '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NPB가 NPPC(미국돈육생산자협회) 등에 위임하여 자조금으로 농가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농가에게는 품질관리증을 수여하고 있음.

○ FTA로 인해 한국시장에 대한 식육점유 계획은 별도로 세운 것은 없으며, 이로 인해 바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미국 대통령까지 FTA협상에 나선 것은 미국의 한국 쇠고기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임. 매년 3% 정도 한국시장의 수출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본시장에 더 역점을 두고 있음. 한국에서는 돈육의 자체 개선점(품질관리,생산여건등)을 시급히 고민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한국도 자국의 돈육에 대한 자존심을 가져야 하며, 자급율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생산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임.

○ 한국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한국 주재 MEF 지사와 협조가 된다면, 한국내 돼지고기 홍보를 같이 하는 등 공동 노력도 가능할 것임.

○ 현재 세계시장 미국돈육의 점유율은 27% 정도이며, 이는 달러 가치가 떨어진데도 영향이 있음. 미국의 돈육 자급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멕시코산을 수입하고 있으며,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개인업체가 수입, 수출 여부를 판단하여 이익이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함.

○ 한미FTA로 인해 미국 농가가 두당 10달러 추가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한 것은 학자의 연구결과를 NPPC가 발표한 것인데, MEF는 잘 모르는 내용임.

<사진3-1> MEF 브리핑

<사진3-2> MEF 질의응답

4. 미국 돈육생산자 협회(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 아이오와 돈육생산자협회 (Iowa Pork Producers Association)

□ 면담자 : NPPC 이사 Sam Carney, IPPA 전무 Richard Degner 및 회장단

□ NPPC(미국돈육생산자협회) 주요현황

○ 회원 : 정회원 - 44개주 돈육협회

협력회원 - 돈육산업관련(돈육사슬 - pork chain) 회사 또는 협회- 연회비 $2,000

○ 사무소 : 본부 - Des Moines, Iowa

Washington 사무실 - 의회 및 정부관계

○ 최근주요업무 -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

- 환경보전(Conservation and Environment)
- 동물건강 및 복지(Animal Health and Welfare)
- 가격의무 보고(Mandatory Price Reporting)
- 원산지 표시(Country-of-origin Labeling)
- 농업안보(Agricultural Security)
- 농업법안(Farm Bill)

○ 2007 돈육포럼(Pork Forum) 주요의결 사항

- 전국 동물 ID 의무제도(NAIS)
- 광범한 동물복지 전략(Comprehensive Animal Welfare Strategy)
- 돈육품질보증 프로그램(PQA Plus Program)
- 사료용옥수수 확보(Availability of Corn for Feed)
- 에탄올부산물 사료 연구(Fed, Funding for DDGS Research)
- 바이오디젤 용도(Bio-diesel Usage)

□ IPPA(아이오와돈육생산자협회) 주요현황

○ 연혁 : 1930년대에는 양돈농가(swine farmers) 위주의 협회였다가 1960년대에 소비자 지향 돈육생산자(pork producers)협회로 바꾸면서 농장은 물론 원료, 도축, 가공, 소비까지 포함할 수 있는 총제적인 돈육산업으로 바뀌게 되었음. 1968년에 Iowa Pork Producers Association으로 조직을 개편함.

○ 목표 : 아이오와 돈육생산자가 리더쉽을 갖도록 기회를 주고, 수익을 얻게 하고, 성공할 수 있게 하고, 친목을 도모함.

<그림4-1> IPPA 주요 사업내용

1 Producer Education : 생산자 교육
2 Promotion : 판매촉진
3 Public Relations : 홍보활동
4 Consumer Information : 소비자 정보제공
5 Export : 수출
6 Research : 조사연구
7 Government Affairs : 대정부 관계

<사진4-1> IPPA 홍보물

○ 주요 활동사항 :
- '나는 오늘의 돈육생산자다'라는 표어와 젊은 가족단위 사진을 게재하여 일반 소비자와 아이오와 주민에게 친근감 있게 홍보함.
- 농장을 언론기자,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안전하고,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고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음을 홍보함.
- 매년 1월 'Iowa Pork Show'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단위와 주단위별로 돼지 아가씨 선발 캠페인을 실시함.
- 관련 품목(쇠고기,닭고기,옥수수,대두등)과 연합체를 형성하여 아이오와 농업의 가치와 비중,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 아이오와 양돈산업 현황 :
- 사육두수 : 1,720만두 (인구 290만명으로 1인당 세계 최고 사육두수)

	1970	1980	2001	2003	2006	비 고
두수	1600만두	1630	1500	1580	1720	

- 종돈 : 253만두(1968년) ⇒ 108만두(2006년, 1/2감소)
- 돈육생산 비교표(1999년)

	덴마크	아이오와	비 고
인구	530만명	290만명	아이오와: 52명/sq.mi.
면적	17000sq.mi.	56000sq.mi.	덴마크: 56,275명/sq.mi.
농가수	16000명	14500명	
육돈출하	2270만두	2655만두	
면적당 출하	1335/sq.mi.	474/sq.mi.	덴마크의 1/3 수준

- 아이오와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33%, 대두 27%를 아이오와의 돼지가 소비하고 있으며, 아이오와 양돈산업으로 인해 63,000명의 인력 고용, 120억불의 생산효과를 보고 있음.
- 아이오와에 돼지가 많은 이유는 땅이 비옥하여 사료원료가 충분히 생산되고, 분뇨는 비료로 환원되므로 문제가 없고, 수송수단이 좋고, 도축장이 넉넉하게 있어서임.
- 아이오와 도축장에서 미국 돼지 전체물량의 30%를 소화하고 있으며, 인근의 미네소타 등과 합치면 60%를 차지하고 있음. 아이오와에서 하루에 12만두의 돼지를 도축하고 있음.
- 아이오와의 최근 문제점은 수질문제, 공기문제, 동물복지문제, 농가수 및 돼지수 조정문제, 사료문제 등이며, 농장별로 수질, 공기, 토양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일이 기록해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서를 받아야 함.

<사진4-2> IPPA 브리핑

<사진4-3> IPPA 회장단

□ 주요 질문응답 내용

○ 아이오와 농가중 50% 정도가 IPPA 회원이며, 연회비는 20불임.

○ NPB에서 의무자조금(40¢=0.4%)사업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돈육생산자협회에서 전략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해 두당 10¢(0.1%)의 임의자조금(SIP, Strategy Investment Program)을 걷고 있음. 그래서 의무자조금 220만불, 임의자조금 100만불, 연회비 7만2천불의 수입이 있음.

○ 농가가 계열화되어 의사결정권을 빼앗긴 것 같은 상실감이 있을 수 있으나, 효율을 생각안할 수 없음. 개별농가로 경쟁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했을 것이나, 계열화가 된 관계로 투자, 유통, 판매 등 걱정할 일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보장이 되므로 농가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봄.

○ 지육가격은 경매가 아닌 소매단계 소비자 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최종 소비자 가격이 결정되면 역산하여 지육가격 및 농가수취가격이 결정됨.

○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조사연구를 함에 있어 자체예산에 대해 매칭펀드로 100% 정부지원이 있으며, 농가에 대해 직접 지원되는 것은 없음.

○ 무창돈사이고,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기후상 문제는 전혀 없으며, 회사에서 돈사를 일괄하기 때문에 거의 표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주위에 곡물이 많아 분뇨는 100% 비료로 활용하며, 분뇨살포시 정부의 규제가 매우 심함. 대기오염, 수질오염, 냄새 등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교육과 자격증도 받아야 하며, 정부의 사후관리도 철저함.

○ 돼지개체식별은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이로 인한 업무가 복잡함.

○ 도축장 경영에 농가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기업이익 위주이며, 정부의 지원이나 협회의 관여는 없음.

<사진4-4> IPPA 방문 기념

<사진4-5> NPB가 개발한 Pork chop on stick

5. 미국 아이오와 돈육생산자 농장

□ 면담자 : Scott Tapper (아이오와돈육생산자협회 회장)

□ 농장 주요현황

○ 농장주 : Scott Tapper 및 가족

- 100년 동안 5대에 걸쳐 양돈업을 하고 있음.

○ 토지 : 옥수수(90만평), 대두(60만평)

- 외부 사람들이 땅을 사서 땅값이 상승중임 (3000불/acre→6500불/acre)

○ 돼지 : 자돈은 선물시장에서 구입, 비육하고 있으며, 모돈은 없음.

- 2주에 한번 500두 생산(20일령-5kg) → 1500두 자돈사(8주-35kg) → 3500두 비육돈사(10주-140kg) → 선물시장 또는 타이슨 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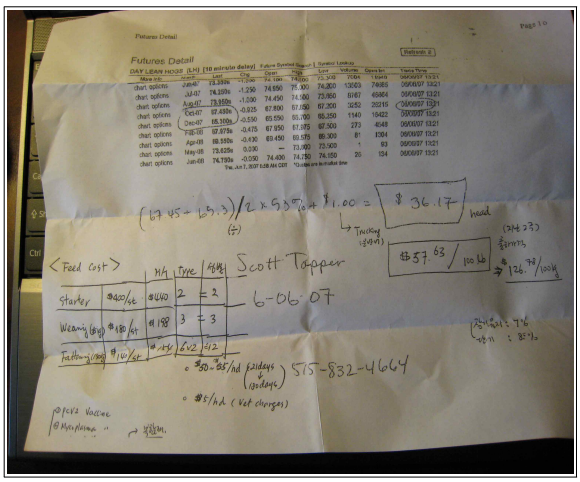
□ 주요 질문응답 내용

○ 처음에는 일괄사육을 했으나 지금은 아이오와 전체가 패턴이 바뀌어 자돈을 사와서 출하까지 시키고 있음. 선물거래를 하며,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자돈을 사면 5개월 뒤에 들어오고, 그때 53%의 가격을 지불함. 평균적으로 자돈 500두를 사면서 450두 정도를 판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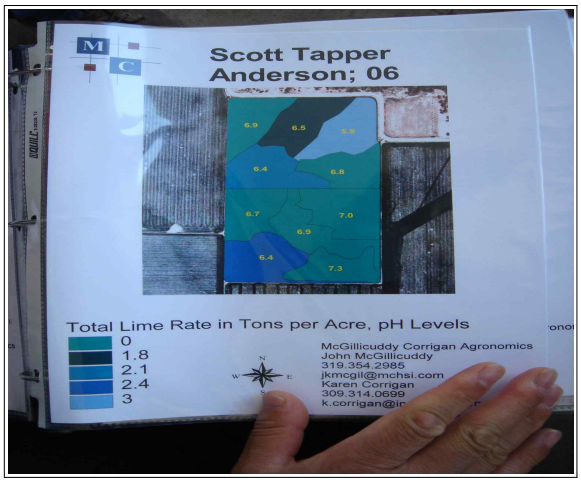
○ 돼지는 라지화이트, 랜드레이스, 듀록, 요크셔가 있으며, 자돈을 사서 1/3은 시카고 선물시장에 팔고, 1/3은 옵션거래로 팔고, 나머지는 타이슨푸드와 최저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함. 선물 옵션은 프리미엄만 포기하면 팔수도 안팔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타이슨푸드에 최저가격으로 판매함.

○ 자돈 구입은 두당 운송비(1불)를 포함하면 두당 36.17불이며, 돼지 판매가격은 126.78불/100kg 임.

<그림5-1> 농장 데이터



<그림5-2> 토양 분석 리포트(pH농도)



○ 우리 농장이 경쟁력이 있는 것은 ①작물을 재배한다는 것, ②사료를 자가배합한다는 것, ③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④분뇨를 액비로 사용한다는 것임.

○ 돼지는 자돈 1,500두(무창돈사), 비육돈 3,500두(5동)가 있으며, 총수익중 돼지가 75%, 작물 20%, 기타 5%임. 돼지 두당 판매수익은 25불 목표임.

○ 농장에서는 HACCP는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FDA와 USDA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출하처인 타이슨푸드와 PQA(품질인증)을 해야함.

○ 작물재배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연간 28¢/bushel(1부셀=35.24ℓ) 받으며, 지난해 실적이 목표치보다 저조하면 감액하고, 목표치 이상 수확할 때는 무제한으로 보조금을 지원함. 그리고, 지난해에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게 해주고, 소득이 적으면 비료 등을 살 때 무상구매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줌. 하지만, 돼지를 키운다고 보조금이 나오는 것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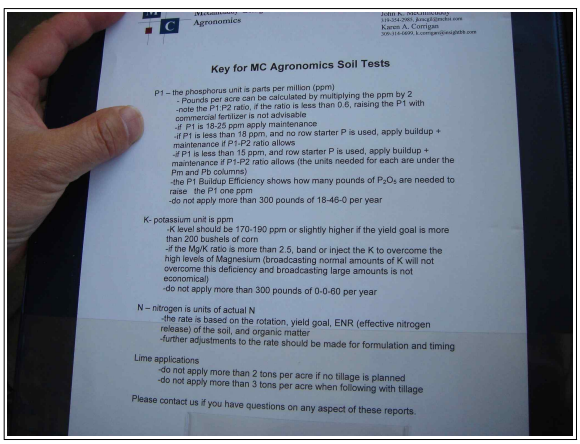
○ 사료비는 Starter(자돈) 440불/톤, Weaning(육성돈) 198불/톤, Fattening(비육돈) 154불/톤이 들며, 총비용은 50~55불/두 소요됨. 사료는 자돈 2종류, 육성돈 3종류, 비육돈은 암수 각각 6종류씩 12종류가 있음.

○ 연간 150만gallon의 액비를 숙성하지 않고 바로 살포하고 있으며, 돈사 밑에 2.4m의 슬러리 피트가 있음. 액비는 1년에 두 번(봄, 가을)에 빼냄.

○ 액비살포 규정이 있으며, 규정된 함량에 맞게 액비를 뿌리고 토양 분석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정부에서 합격여부를 판정하며, 합격시 액비살포 자격증이 나옴. 정부 관계자가 1년에 한번 와서 장부 기록을 조사함. 4년에 한번씩 토양 분석 보고서 작성 비용을 7불/acre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확비료를 덜 쓰게되어 15~18불/acre의 수익을 얻고 있음.

○ GPS시스템을 이용하여 1 acre(1224평)당 토양 샘플의 영양소와 수확한 작물의 영양소를 비교분석하고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고 있음. 토양 산성화를 막기 위해 중화제를 뿌림.

<그림5-3> 경작지 분석 리포트



Agronomics

Karen A. Corrigan

Key for MC Agronomics Soil Tests

P1 – the phosphorus unit is parts per million (ppm)
- Pounds per acre can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ppm by 2
-note the P1:P2 ratio, if the ratio is less than 0.6, raising the P1 with commercial fertilizer is not advisable
-if P1 is 18-25 ppm apply maintenance
-if P1 is less than 18 ppm, and no row starter P is used, apply buildup + maintenance if P1-P2 ratio allows
-if P1 is less than 15 ppm, and row starter P is used, apply buildup + maintenance if P1-P2 ratio allows (the units needed for each are under the Pm and Pb columns)
-the P1 Buildup Efficiency shows how many pounds of P_2O_5 are needed to raise the P1 one ppm
-do not apply more than 300 pounds of 18-46-0 per year

K- potassium unit is ppm
-K level should be 170-190 ppm or slightly higher if the yield goal is more than 200 bushels of corn
-if the Mg/K ratio is more than 2.5, band or inject the K to overcome the high levels of Magnesium (broadcasting normal amounts of K will not overcome this deficiency and broadcasting large amounts is not economical)
-do not apply more than 300 pounds of 0-0-60 per year

N – nitrogen is units of actual N
-the rate is based on the rotation, yield goal, ENR (effective nitrogen release) of the soil, and organic matter
-further adjustments to the rate should be made for formulation and timing

Lime applications
-do not apply more than 2 tons per acre if no tillage is planned
-do not apply more than 3 tons per acre when following with tillage

Please contact us if you have questions on any aspect of these reports.

<사진5-1> 농장 방문 기념

6. 세계돈육박람회 (World Pork Expo)

□ 전시기간 : 2007. 6. 7 ~ 6. 9

□ 전시장소 : 미국 아이오와주 드모인 Iowa State Fairground

□ 전시주최 : 미국 돈육생산자협회

□ 전시규모 : 약 550 업체 참가 (약 65,000명의 전문인 관람)

□ 전시내용 :

양돈기자재, 종돈, 모돈, 사육기술·사육관리, 인공수정, 돈사(축사)설비, 환기·열풍기·FAN, 고압스프레이, 펌프, 단열재·가습기, 사료·첨가제, 동물약품, 양돈기자재, 살충제·살균소독, 폐기물처리, 돼지고기 요리, 육류 소비홍보 기술, 컴퓨터 운영체계, 최신 샘플, 가축 운송기술 등

□ 전시개요 :

세계최대규모의 돈육박람회로 양돈뿐만이 아니라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 식품 등 돈육산업과 관련한 폭넓은 전시품목이 전세계로부터 참가한 업체들로부터 전시되어진다.

보다 양질의 육류공급을 위하여 사료에서부터 식사서비스(캐이터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돈육산업의 모든 것이 3일동안 펼쳐지며 아이오와주에서 손꼽히는 국제박람회로서 동업종 종사자를 비롯한 수많은 관련전문인들이 방문한다.

<사진6-1> NPB 부스 방문기념

<사진6-2> NPB 슬로건(신뢰=이미지)

7. 미국 방문시 토론내용 및 후기

□ 김건태 위원장

앨빈토플러가 한국에서만 빨리빨리란 말이 통하고 있으며, 한국이 위기 대처 능력이 제일 뛰어나다고 했다. 한국만이 빨리빨리란 말을 소화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였다. 현재, 자조금 및 농업 선진국인 미국의 실상, 운영방법 등의 시스템을 견학하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향후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를 논의 및 고민할 시점이라고 본다.

□ 김동환 부위원장

미국의 자조금과 양돈산업 현황에 대해 배우러 왔고, 기대도 컸었다. 미국에 와서 양돈농가와 자조금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얻었다.

□ 진길부 부위원장

미국에 와서 보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고 본다. 농가는 농가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 위치를 풀고, 수준을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

자조금 재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소비홍보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비율이 높을 뿐이다.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유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Freedom is not free(세상에 공짜는 없다)

□ 오세관 위원

미국에 견문을 넓히러 왔는데, 너무 일정이 타이트한 관계로 여유가 없어 아쉬웠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해 만족한다.

□ 김건호 위원

한미 FTA 등으로 인해 생산농가의 압박이 크게 느껴진다. 이에 우리가 세계시장에 대해 방어만 할 것인지, 세계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인지 걱정이 많다. 자조금으로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도축에서부터 가공까지 안전하고,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 모두 함께 어우러져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생산농가에게 힘을 키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김명규 위원

나는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러 왔다. 우리는 수입국인데 이정도로 여러분의 열과 성이 있다면 자신있다고 본다. 모든 여행은 100% 만족이 없다고 보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개선하면 좋다고 본다.

□ 박창식 위원

지금까지는 양돈업을 하면서 먹고 살만 했었고 자신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매우 불안하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표현해야 하며,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한는데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올해 대의원 선거가 있는데 우려가 많다. 현재 처해진 한도 내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받아야 한다. 미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다. 단지, 우리나라 실정에 얼마나 맞는지 잘 파악하여 컨셉을 잘 잡아야 한다고 본다. 양돈산업을 위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 이병규 위원

미국에 와서 많은 것을 보았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 이제만 위원

미국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과 여건에 맞게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이 안된 점에 대해 아쉬웠다.

□ 박광욱 대의원

미국을 방문하면서 보고 느낀 공감대가 비슷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돈산업의 축에서 돈육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느꼈다.

□ 윤병현 대표 (FEED BEST 대표)

좋은 여행에 동참할 기회를 주어 감사드린다. 자조금이 FTA를 맞아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 김기태 대표 (동축포크 대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을 보러왔는데, 다소 아쉬웠다. 미국산 돼지고기 매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도 위생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 낳다고 생각했다.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NPB의 '신뢰는 이미지다'라는 문구였다. 한국에 돌아가서 그 이미지를 심도록 노력하겠다.

□ 박영인 이사장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

우리나라 축산업중 양돈산업이 제일 희망이 있다고 본다.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큰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짰으면 한다. 이정도면 서로 참고 양보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여행이었다. 조화롭게 잘 헤쳐나갈수 있을 것이다. 아쉬웠던 점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전오리엔테이션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